

(KIC중국, 2021.4.13)

□ “중국 백신 보호율 낮다?” …中 질병예방통제센터 주임 “완전히 오해”

최근 일부 언론과 해외 SNS 플랫폼 이용자들이 “가오푸(高福)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주임이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낮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중국은 효과가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접종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언론플레이했다. 11일 가오푸 주임은 인터뷰에서 이를 단호히 부인하며 “이는 완전히 오해”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전 세계 과학자들이 백신의 보호율 문제를 논의할 때 자신은 접종 절차 최적화 및 상이한 기술 로드맵을 채택, 번갈아 접종하는 것을 통해 백신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향후의 과학적 사고를 제기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가령 접종 횟수와 접종 용량, 투약 간격 등 접종 절차를 최적화하는 것이나 몇 가지 백신을 번갈아 접종하는 방식 등 나의 생각을 말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코로나19 백신의 유효성 기준은 50% 이상이며, 현재 세계 대부분의 백신이 출시될 수 있는 합격선은 70% 이상이다. 가오 주임은 또 “중국은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기술지침(Ver.1)’을 내놓았으며, 이것이 현재 최적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을 접종하는 이점이 위험보다 훨씬 크므로 모두가 함께 백신을 맞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백신은 공평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전 세계가 백신을 공유해야 한다”면서 “전 세계가 백신을 공유하지 않으면 바이러스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人民网, 2021.4.12.)

□ 신장 아라산커우 통상구, 98일 만에 중국-유럽 화물열차 1500편 운행…42일 단축

자동차 부품과 엔지니어링 장비, 가구·육식 제품 등 화물을 가득 싣고 독일 자스티츠에서 출발한 중국-유럽 화물 열차 ‘창안호(長安號)’가 최근 신장 아라산커우(阿拉山口) 통상구에 도착했다. 이는 올해 아라산커우 통상구를 운행한 1500번째 중국-유럽 화물열차다.

리홍평(李宏峰) 아라산커우 해관 관리감독2과 과장은 “올해 98일 만에 1500편이 운행됐다. 작년보다 42일이나 앞당겨 기록을 경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중국-유럽 화물열차는 수송량이 많고, 가격이 저렴하며, 통과 국가(지역)가 많고, 안정성이 강한 등 장점이 두드러지면서 많은 기업의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라산커우 통상구는 통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국-유럽 화물열차를 위한 전용 창구를 개설해 24시간 도착 즉시 통관을 진행했다. 해관 부처는 적하목록 취합과 페이퍼리스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한편 철도 부처와 공동으로 ‘디지털 통상구’ 시스템을 보급해 열차 통관 수속을 더욱 간소화함으로써 통상구에서 열차 정차 시간을 단축시켰다.

마원창(馬文強) 신장 중롄하이통(中聯海通) 국제화물운송대리유한회사 아라산커우 지사장은 “예전에는 사람이 다리품을 팔아야 했던 많은 단계들이 데이터가 다리품을 파는 것으로 변했다”면서 “중국-유럽 화물열차 통관효율이 크게 상승됐다”고 말했다.(新华社, 2021.4.13.)